

세계에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 알리다

-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계기 원탁회의를 통해
국제사회에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 제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이하 산업부)는 12. 5.(화) 15시(UAE 현지 시각) COP28에서 무탄소 연합(CF연합, Carbon-Free Alliance) 주도로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 확산을 위한 원탁회의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전 지구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COP28 기간에 개최된 동 행사는 국제사회에 우리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를 알리고, 국내외 기업과 함께 무탄소에너지 활용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김상협 민간위원장,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Abdalah Mokssit 사무국장 등 주요 인사가 참석했고, 삼성전자, 포스코, 일본제철, EPRI 등 약 30개 기업이 참석해 의견을 제시하고, 질의 응답을 나누는 등 활발한 토의가 진행됐다.

이날 원탁회의에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무탄소에너지 활용 논의가 진행됐다.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제조기업은 수요기업 입장에서 그리고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기업은 공급기업 입장에서 무탄소에너지의 필요성과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기했다. 아울러,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과 함께 산업 공정에 무탄소 연·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참여기업들은 탄소중립을 이행할 수단이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수소, 원전 등 모든 무탄소에너지로 확대된다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업의 탄소중립 노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무탄소에너지 사용실적을 인정 받을 수 있는 인정체계가 신속히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CF연합의 대표이자 CFE특임대사인 이희성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의 글로벌 위상에 걸맞게 무탄소에너지 인증체계 등 글로벌 규범 정립에 주도적 역할을 할 때가 되었다” 며,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에 세계 각국 정부, 국제 에너지 협의체와 민간부문의 동참을 유도해 나가면서, 전 지구적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위기 해법을 찾아나갈 것” 이라고 선언했다.

담당 부서	산업정책관	책임자	과 장	이한철 (044-203-4240)
	산업환경과	담당자	사무관	강희경 (044-203-4248)

□ **행사개요**

- (목적) CFE 이니셔티브 국제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협력방안 논의
- (일시/장소) '23. 12. 5.(화) 15:00* / COP28 한국관 (UAE 두바이)
* UAE 현지 시각 기준 (한국 시각 12.5.(화) 20:00)
- (주최/주관) 산업통상자원부 / CF연합 (Carbon Free Alliance)
- (주요 참석자) CF연합 회장(CFE특임대사), 탄녹위 민간위원장, 국내·외 주요기업*

* (한국) 삼성전자, 포스코, GS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해외) 일본제철, 美 EPRI (Electric Power Research Institute)

□ **프로그램(안)**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5:00 ~ 15:04	개회사	CF연합 이회성 회장
15:04 ~ 15:15	축사	탄녹위 김상협 위원장 IPCC 사무국장(Abdalah Mokssit)
15:15~15:39	【패널토의 ①】 무탄소e 수요 확대 방안과 관련 기술	(좌장) CF연합 회장 (韓) 황호송 삼성전자 상무
15:39~16:02	【패널토의 ②】 무탄소e 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 기술	(좌장) CF연합 회장 (韓) 정용석 한수원 본부장 이승엽 GS에너지 상무 (外) Arshad Mansoor EPRI 사장
16:02~16:25	【패널토의 ③】 산업 공정 연·원료 무탄소화 촉진 방안	(좌장) CF연합 회장 (韓) 안윤기 포스코경영연구원 상무 (外) Dohnomae Hitoshi 일본제철 GM
16:25~16:30	폐회사	CF연합 이회성 회장